

해외동포들이 부른 태양칭송의 노래

대를 이어 위인을 받들리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여 평양대극장에서는 4월의 축전장으로 달려온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혼성5중창과 무용 《민족의 제일행운》으로 공연의 막을 올렸다. 그들은 부채를 든 무용수들의 멋들어진 춤가락과 장새남독주 《통일돈돌라리》의 경쾌한 음률로 온 관람석을 들뜨이게 하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다음으로 무대에 나온 김일성상제관인이며 인민배우인 홍령월동포는 올해 창립 40돐을 맞는 가극단이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애국의 뜻을 키워가던

해 서로 도우며 이끌어가는 새 세대 동포 청년들의 굳센 모습을 엿보게 하는 남성5중창 《안해의 품》과 《내 사랑하는 나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복판에서도 끄떡없이 지켜지고 있는 조선민족의 신물이어서 관중의 감흥과 호응은 더더욱 깊고 열렬한것이다.

일본당국의 불법무도한 총련말살책동으로 하여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겪고있는 재일동포들이다.

자본주의 갈바람 무섭게 몰아치며 총련을 없애치우려 해도 대원수님들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총련을 지키는 김정은원수님 계시기에 애국의 한길로 역세게 살아나갈것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는 《총련부흥아리랑》으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은 절정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민족의 넋을 지켜 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백두산위인들에 뜨거운 사랑을 담아온 노래들도 훌륭히 형상하였다.

탁월한 선군령도로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남성5중창 《내 조국의 밝은 달

* 재 중 조 선 인 예 술 단 *

이역땅에서도 언제나 조국에 대한 그리움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걷고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속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동포들도 있다.

이번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울려 퍼진 그들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노래와 춤 《만경대의 노래》의 은은한 선물로 시작된 공연은 첫시작부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재중동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잘 보여주었다.

남성독창 《아 수령님 품이여》(김학준), 혼성중창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삼니다》(김학준), 혼성중창 《태양민족의 긍지를 노래와 기악에 같아

받들어가며 천만년 길이 모실 우리원수님 내 마음 언제나 그이결에 자아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재중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과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을 받들어나갈 맹세의 의지가 어려있는 노래였다.

재중동포예술인들은 남성독창 《뿌리가 되자》(최경호), 녀성독창 《대흥단삼천리》(림평), 남성독창 《오늘의 창성》(리용수) 등 조국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들도 훌륭히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본사기자 김 춘 경



혼성5중창 《조국찬가》

무대위에 올린 《마식령의 메아리》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에술단

이번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조국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에술단의 동포들이 출연한 작품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아하고 부드러운 민속무용들을 마련해가지고 봄축전무대에 올리었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국의 현실한계의 작품들을 새롭게 형상하였다.

최금향동포 외 5명의 동포예술인들은 스키복을 입고 무대에 나와 마식령에서 스키를 타며 출겨온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세련되고 생동한 무용물동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노래 《변영하여라 로동당시대》의 경쾌하고 박력있는 선율에 맞추어 마식령스키장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 나와 눈날기를 날리며 스키

라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에술단의 동포예술인들이 출연한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는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조국의 약동하는 현실을 특색있게 잘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밖에도 남별동포가 부른 녀성독창 《바다만풍가》, 《우리 사랑한다》도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사기자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예술인들속에는 재미조선인예술단 동포들과 재오스트랄리아조선인독창가일행도 있다.

김원공명정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된 이들의 공연을 보며 관람자들은 몸은 비록 대양건너 멀리에 있어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사는 그들의 절절한 마음을 잘 알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재오스트랄리아조선인독창가 김미소동포가 부른 노래 《불타는 소원》은 시작부터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일념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를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축하해주었다. 특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켜주고 빛내주시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펼쳐가시는 선군조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태양절을 맞으며 고국을 또다시 방문하였다.

사실 이번 고국방문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말할수 있다.

1989년 3월 남편 주용돈사장과 함께 처음으로 고국을 찾았던 그때로부터 만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때문이다.

아직도 그때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8살때 떠났던 고국땅을 44년만에 밟던 그때의 감동과 격정이란 뭐라 한두마디로 말할수가 없다.

그 첫걸음이 오늘까지 이어진것이다.

2000년 1월 남편이 별세한 뒤로 나는 혼자서 고국방문길에 오르곤 했다.

남편과 함께 걸던 애국의 길, 남편이 바라던 민족을

태양민족의 긍지를 노래와 기악에 같아

* 재미조선인예술단, 재오스트랄리아조선인독창가일행 *

부강조국건설에 한몸바칠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의 열의가 구절구절에 높뛰는 노래 《조국찬가》를 부를 때에는 관중들도 박수를 치며 공연장의 열기를 한껏 달구었다.

재미조선인예술단 임미정동포의 피아노독주 《조선은 하나다》도 관중들의 절

찬을 받았다. 그는 공연에서 반만년의 피조를 이어온 하나의 민족, 백두에서 뿜어내린 하나의 강도가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겨레의 쓰라린 아픔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지지를 예술적으로



피아노독주 《조선은 하나다》와 노래 《불타는 소원》



리 알려진 재능있는 음악가이다. 겨레의 사랑을 받고있는 그가 무대에 출연하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그는 흥취나면 서도 감미로운 선율에 풍년든 청산별의 전경을 담은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를 곡상의 요구에 맞게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하게 지휘하였다. 특히 그가 지휘한 관현악 《발걸음》은 관람자들의 가슴속에 송고한 인민사랑으로 조국땅위에 강성부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불리일으켜주며 힘차게 울려 퍼졌다.

절세위인들을 사무치게 그러며 그분들의 유훈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겨레의 불타는 애국의지를 다채로운 예술종목들을 통해 잘 보여준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태양민족의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어 공연무대가 더욱 환해보였다.

본사기자 최 대 성

위인칭송의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있을것이다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 나는 여러번 축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축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를 칭송하는 4월의 이 봄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것입니다.

2014년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조로씨아연방대사관 무역점사 레사고브)

◎ 아름답고 황홀한 꽃전

시장입니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사랑과 위인에 대한 존경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꽃축전장으로 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나이제리대전위원회 위원장 알 하산맹면 무함마드)

◎ 영원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민족자주와 세계의 자주화의 불멸의

수령이십니다.

김일성화는 수령님의 영성과 함께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존앙을 받게 될것입니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윤길상)

◎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인칭송의 꽃 김일성화는 온 세계에 영원히 아름답고 만발하게 피어있을것입니다.

(중국 룬춘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 총경리 양홍준)

고국을 위해 더 열심히

위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마음안고 너의 혼자몸이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고국을 찾곤 하였다.

고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나는 여러 농장들을 찾아가보면서 나라가 겪는 아픔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농업학 박사로서 내 지식과 힘으로 고국인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고국에 올 때마다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협동농장, 황해남도 삼천군 도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을 찾아 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기도 하면서 그곳 농

장원들과 친혈육처럼 지내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순박하였지만 그들은 나로 하여금 한복출로 이어진 한민족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아파했던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해마다 오지만 한해가 다르게 고국은 달라지고 발전해가고있다.

올해 2월에 마식령스키장에 가보고 많이 놀랐다. 내 나이 올해 77살이지만 스키에서는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않았다 소리를 들을만큼 스키에호기이다. 그만큼 세계 많은 나라들의 스키장들을 돌아보았는데 마식령스키장은 정말 훌륭하였다.



전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고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대학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자주 고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번에도 강의를 하였다. 지난 3월 평양에서 농업학 명예박사의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

지금 나의 가슴속에는 나의 지식과 힘을 바쳐 고국의 농업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다는 일념뿐이다.

앞으로도 남편의 뜻을 이어 고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나가겠다.

김 필 주(미국 지구촌 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 운동 회장)